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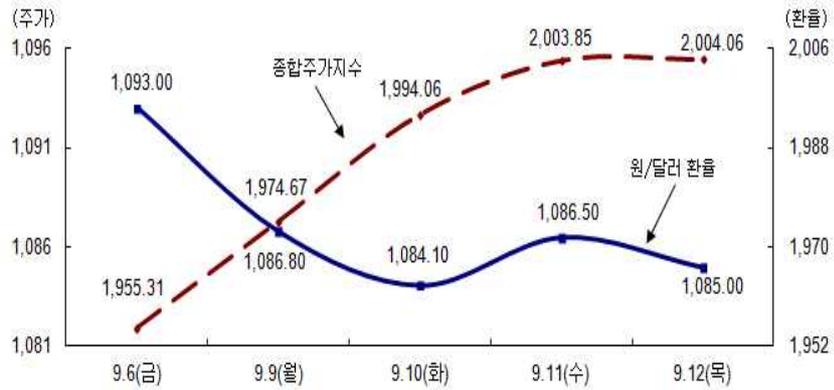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 SOC 스톡과 투자 계획 평가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6~9.1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 SOC 스톡과 투자 계획 평가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김 광 석 선임연구원 (02-2072-6215, gs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 SOC 스톡과 투자 계획 평가

■ SOC 투자의 중요성

SOC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한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지출을 늘리고 SOC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 본고는 SOC 스톡의 국제비교를 통해 SOC 투자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향후 SOC 투자 계획 진단을 통해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SOC 스톡의 국제비교

SOC 스톡은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첫째,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다. 국토계수 및 국토자동차계수 당 도로연장이 각각 OECD국 중 31위, 30위수준이고, 철도의 경우에도 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둘째, 수처리 인프라 부문**에서는 한국의 용수공급 인프라 수준이 멕시코, 터키 등 7개국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있다. 더욱이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 및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셋째, 물류 인프라 부문**에서는 '산업의 발' 이 묶여 있음에 비유될 수 있다. 한국의 물류 인프라 경쟁력 지수는 OECD 평균에 못미치고, 원자재공급 인프라도 최하위 수준이다. **넷째, 에너지 인프라**에서도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의 발전분야 에너지자급률은 19% 수준으로, OECD 평균(약 70%)에 크게 못 미친다.

■ SOC 투자의 감소 추이

SOC 투자는 급감하고 있다. 2010년 이후 SOC투자가 감소하여 2010년 41.7조원에서 2012년 35.3조원조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SOC 투자 비율도 2009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009년 4.2%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최저수준 3.2%를 기록하였고, 2016년까지 GDP 대비 SOC 투자 비율이 2.4%로 급감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SOC 분야를 중심으로 세출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2~2016년 재원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12개 분야에서 SOC 분야 재원만 축소할 계획이다. 더욱이,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현재 **민간 사업자 및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 열의가 상당히 저하**되어 왔다. 결국, SOC 정부지출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제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SOC 정부지출은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SOC 세출 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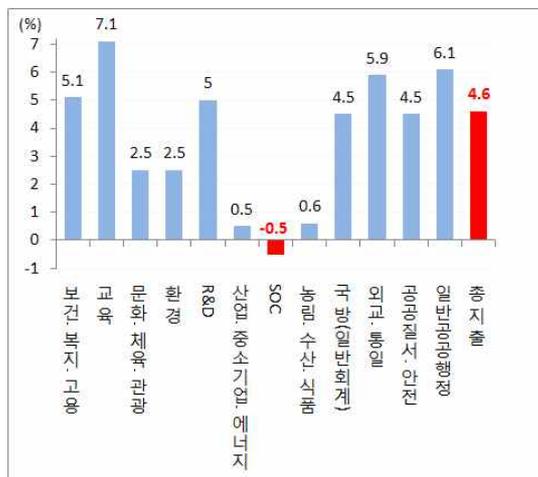
■ 시사점

공공부문은 SOC 스톡의 지역균형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이끌 유인책을 마련하며, 나아가 새로운 SOC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은 SOC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SOC 스톡 편중현상을 완화 하고, 기존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투자를 증진해야 한다. **둘째,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BTL, BTO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SOC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건설사들의 미래유망기술 확보 및 신사업 확장을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해야 한다.

1. SOC 투자의 중요성

- 정부는 복지지출을 늘리고, SOC관련 지출은 축소할 계획을 발표
 - 총 12개 재원 지출 분야에서 2012~2016년동안 SOC 부문만 지출 축소 계획
 - 총지출을 연평균 4.6%로 확대하고, SOC만 연평균 -0.5%로 축소할 계획
- SOC(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함
 - (성장 잠재력) SOC투자는 생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케 하고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킴
 - SOC는 도로, 항만, 공항, 댐 등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로서, 경제의 성장잠재력 증대를 위해 중요한 생산요소
 - (경제) 산업연관표상의 통합중분류(78부문)를 기준으로 할 때, '토목 및 특수건설'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각각 2.258, 0.746으로 전산업 평균인 1.935, 0.651보다 높고, 주요 제조업 보다도 높게 나타남
 - '토목 및 특수건설'의 고용유발계수가 10.4로 전산업 평균 8.3을 초과
 - SOC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시 고용창출과 유효수요 확대 등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옴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투자 확대기조의 일환으로 SOC 투자가 대폭 확대됨

< 2012~2016년 부문별 재정 지출 계획 >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2012~2016년 재정지출의 연평균증감률

< 주요 산업별 고용·부가가치·생산 유발계수 >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 유발계수
의복·섬유	2.065	0.657	9.5
석유제품	1.255	0.238	1.0
화학제품	1.916	0.293	1.7
의약·화장품	1.922	0.659	6.3
전기기계	2.139	0.588	6.4
통신기기	2.122	0.452	5.1
컴퓨터	1.542	0.355	4.4
자동차	2.610	0.641	6.3
선박	2.063	0.593	5.6
토목 및 특수건설	2.258	0.746	10.4
전산업	1.935	0.651	8.3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1)』

주 : 통합중분류 78부문 기준임

2. SOC 스톡의 국제비교

○ SOC 스톡,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

- (교통 인프라) 도로,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국제경쟁력 미흡
 - 국토계수 및 국토자동차계수 당 도로연장이 각각 OECD국 중 31위, 30위
 - 철도의 경우, 국토계수 당 총영업거리와 인구 당 총영업거리가 각각 0.048km/√면적*천명, 0.07km/천명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침

< 도로 SOC Stock의 국제비교 >

(단위 : km/√면적*천명, km/√면적*천대)

구 분	국토계수 당 도로연장	국토자동차계수 당 도로연장
한국	1.49 (31위/34개국)	2.46 (30위/34개국)
일본	5.52	7.17
미국	3.76	4.21
프랑스	5.14	6.63
독일	3.75	5.02
OECD 평균	3.75	5.19

< 철도 SOC Stock의 국제비교 >

(단위 : km/√면적*천명, km/천명)

구 분	국토계수 당 총영업거리	인구 당 총영업거리
한국	0.048 (25위/27개국)	0.07 (27위/27개국)
일본	0.092	0.16
미국	0.133	0.75
프랑스	0.158	0.48
독일	0.198	0.41
OECD 평균	0.182	0.56

자료 : IRF(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2012) 자료 : UIC(Union Internationale Chemins, 2011)

주 : 1) 국토계수= $\sqrt{\text{국토면적}(km^2) \times \text{인구}(천명)}$

2) 국토자동차계수= $\sqrt{\text{국토면적}(km^2) \times \text{자동차수}(천대)}$

- (수처리 인프라) 한국의 용수공급(access to water) 인프라 수준은 7.97p로, OECD국 평균 8.71p에 못 미쳐, 멕시코, 터키 등 7개국과 함께 최하위 수준
 - 한국은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12%p로 OECD 국가들 대비 불균형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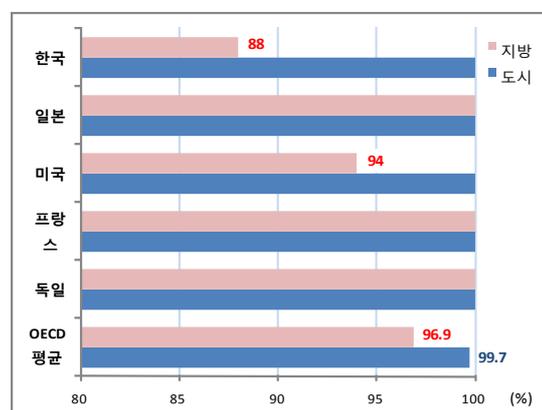
< 용수공급 SOC 국제비교 >

(단위 : m³, p)

구 분	수자원 (인구1인당)	용수공급 인프라 (경쟁력지수)
한국	1,352 (27위)	7.97 (27위)
일본	3,399	9.67
미국	9,001	8.51
프랑스	3,186	9.55
독일	1,302	9.60
OECD 평균	28,296	8.71

자료 : IMD(2013)

< 도시-지방 상수도공급률 국제비교 >



자료 : World Bank(2012)

- (물류 인프라) '산업의 발' 물류 인프라 경쟁력 부족

- 한국의 물류 인프라 경쟁력 지수는 7.59p로 OECD 평균(7.86p)에 못미치고, 원자재공급(access to commodities) 인프라도 8.03p로 최하위 수준
- 한국은 GDP 대비 국가물류비¹⁾ 비중이 11.1%로, 주요국 대비 경쟁력 열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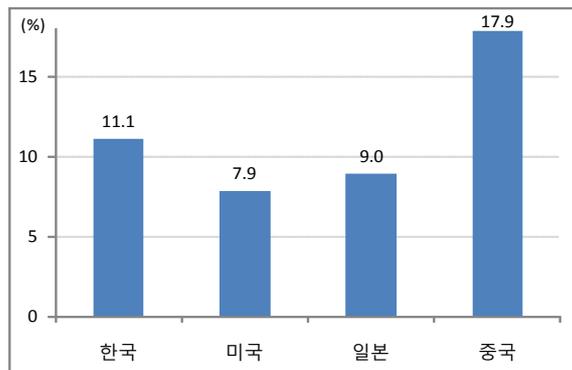
< 물류 SOC 경쟁력지수 국제비교 >

(단위 : p)

구 분	물류인프라	원자재공급 인프라
한 국	7.59 (22위)	8.03 (31위)
일 본	8.90	9.17
미 국	8.63	8.66
프랑스	9.24	9.32
독 일	9.11	9.11
OECD 평균	7.86	8.81

자료 : IMD(2013)

< 주요국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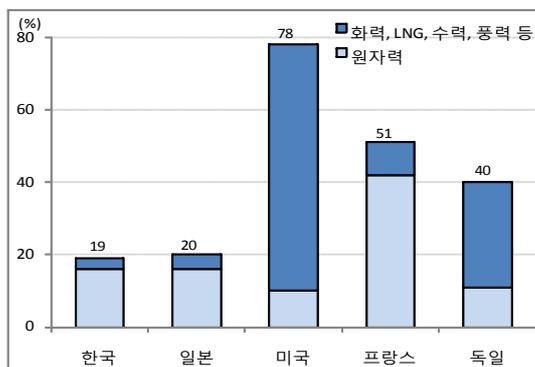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2010)

- (에너지 인프라²⁾) 에너지는 경제활동의 토대이자 국가의 안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미흡한 상황

- 한국의 발전분야 에너지자급률(energy self-sufficiency rate)은 19% 수준으로, OECD 평균(약 70%)에 크게 못 미쳐,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줌
- 한국의 미래에너지 확보 경쟁력 지수는 5.47p로, OECD국 평균이 6.50에 크게 못 미쳐 미래 에너지 확보가 불안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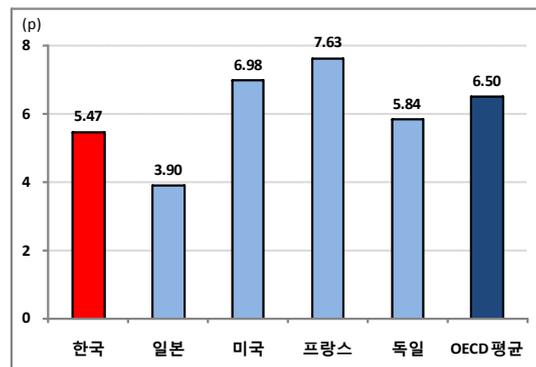
< 주요국 에너지자급률 현황 >



자료 : IEA(2012)

주 : 에너지자급률은 총 에너지수요량 중 발전 원료의 자급 비중을 의미

< 미래에너지 확보 경쟁력 지수 국제비교 >



자료 : IMD(2013)

주 : 미래에너지 확보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안보 수준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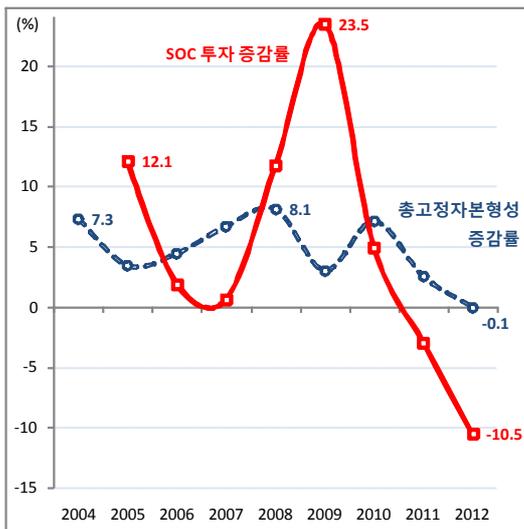
1) 화물의 수송·보관·하역 등 국민경제의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거시경제적 비용을 의미
 2) 에너지 인프라는 수력, 화력, 원자력, LNG, 풍력,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발전설비를 가리킴

3. SOC 투자의 감소 추이

○ SOC 투자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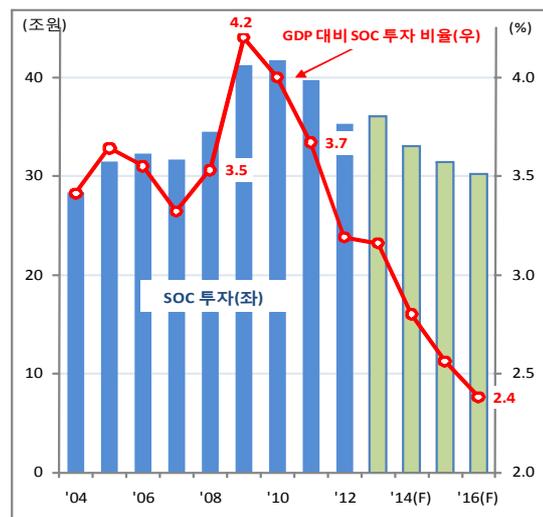
- 2010년 이후 SOC투자가 감소하여 2012년 -10.5%의 최저수준 증감률 기록
 - 2010년 SOC 투자는 41.7조원에서 2012년 35.3조원으로 꾸준히 감소세
 - 생산에 이용되는 자본재구입을 의미하는 총고정자본형성도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2년 -0.1%의 증감률 기록
 - 2009~2012년 동안 SOC 중앙정부 예산³⁾은 25.5조원 → 23.1조원으로, 지방정부 예산은 9.7조원 → 8.8조원으로 꾸준히 감소
- GDP 대비 SOC 투자 비율은 2009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
 - (현황) 한국의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009년 4.2%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최저수준 3.2%를 기록
 - (전망) 기획재정부의 세출절감 계획을 반영할 경우 2016년까지 GDP 대비 SOC 투자 비율이 2.4%로 급감할 전망

< SOC 투자와 총고정자본형성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 : 경상가격 기준임

< GDP 대비 SOC 투자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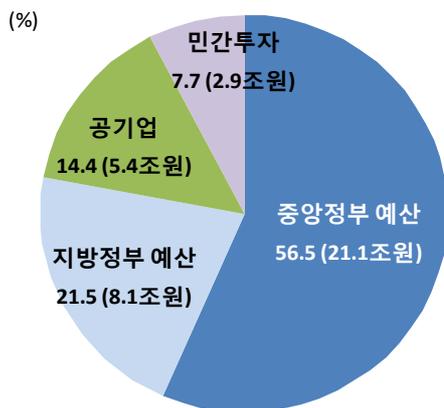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 1) 2005년 불변가격 기준임
2) 2013년 이후는 기획재정부 계획(전망치)

3) 중앙정부 SOC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물류 등에 대한 예산금액을 포함.

○ 중앙정부는 SOC 분야를 중심으로 세출절감 계획

- 2004~2012년 동안 총 SOC 투자액 중 92.3%가 정부 예산
 - 중앙정부는 약 21.1조원으로 56.5%를, 지방정부는 8.1조원으로 약 21.5%를, 공기업은 약 5.4조원으로 14.4%를 차지
- 기획재정부의 2012~2016년 재원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12개 분야에서 SOC 분야 재원만 축소할 계획
 - 총 재원지출은 2012년 325조원에서 2016년 390조원으로 연평균 약 4.6%로 증가할 전망
 -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5.1%, 교육 부문은 7.1%, R&D 부문은 5.0%, 외교·통일 부문은 5.9%로 재정지출을 증대시킬 계획
 - SOC 부문은 2012년 23.1조원에서 2016년 22.7조원으로 연평균 -0.5%의 증감률로 재원 지출을 축소할 계획
- 정부의 세출절감 계획⁴⁾에 따르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금액(12.5조원)을 줄이지만, 이에는 보금자리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드는 재원 소요 9.5조원이 포함
 - 보금자리주택 9.5조원을 제외 시 SOC 분야 세출 절감액이 가장 많이 차지

< SOC 예산 부문별 비중 >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2004~2012년 동안의 SOC 투자 평균

< 중앙정부 분야별 재원 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구 분	2012	2014	2016
보건·복지·고용	92.6	102.1	112.9
교육	45.5	53.2	59.9
문화·체육·관광	4.6	4.8	5.1
환경	5.9	6.4	6.6
R&D	16.0	17.5	19.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3	15.4
SOC	23.1	23.0	22.7
농림·수산·식품	18.1	18.5	18.6
국 방(일반회계)	33.0	36.2	39.4
외교·통일	3.9	4.4	5.0
공공질서·안전	14.5	15.7	17.3
일반공공행정	55.1	61.6	70.0
총 지 출	325.4	357.5	3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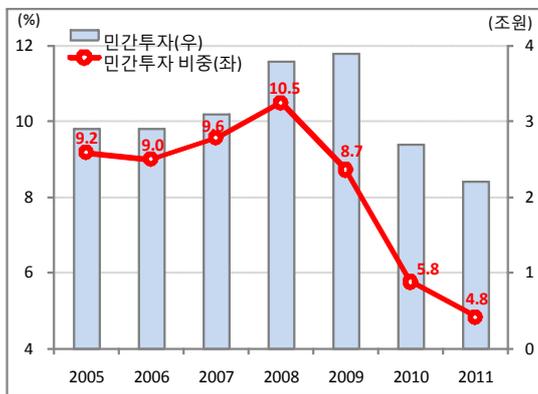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4) ‘【별첨 2】 2012~2016년 정부 세출절감 추진계획’ 참조

○ SOC 투자 중 민자사업의 규모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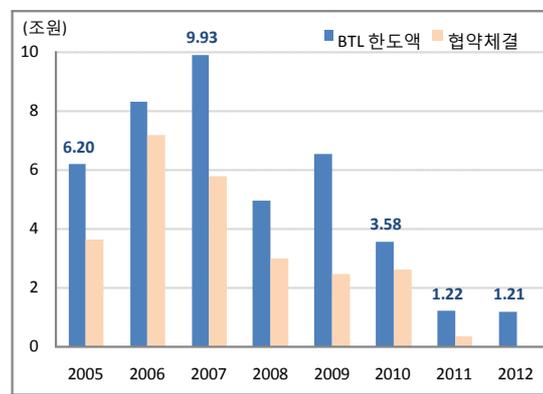
-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현재 민간 사업자 및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 열의가 상당히 저하
- 2011년도 민간투자 금액은 2.2조원으로 2008~10년의 약 4조원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⁵⁾이 2005년에 도입된 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BTL 사업의 추진 실적이 떨어지고 있음
- 2005~2009년 간 BTL 한도액은 6조~10조원 수준에서, 2011~2012년에는 1조원대 수준으로 대폭 감축

< SOC 민간투자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민간투자비중은 총 SOC투자 대비 비중

< BTL 한도액 및 협약체결액 추이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주 : BTL=Build Transfer Lease(임대형민간투자)

- 민자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민간과 금융권의 사업개발 및 투자의욕 저하
-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9~10% 수준에서 현재 5% 내외로 대폭 낮아짐
- 9개 도로 민간제한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투자 기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 SOC 민간투자 시장의 변화 >

기준	과거	현재
건설보조금	30% 내외	0~10%
통행료(도공대비)	1.8배	1.1배
낙찰률	90%내외	70% 미만
참여업체 수	소수(단독응찰)	다수(복수응찰)
수익률	9~10%	5% 내외
사업 방향	정부고시사업 중심	민간제한사업 중심

5)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는 대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약정기간(통상 20년) 동안 해당 시설을 임차(Lease)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

3. 시사점

○ SOC 정부지출 축소에 따라 성장잠재력의 하락이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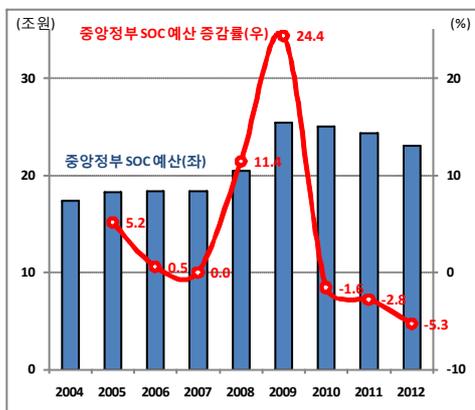
- 중앙정부 SOC 예산지출이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

- 중앙정부는 SOC 예산은 2004년 17.4조원에서 2009년 25.5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09년 이후 감소추이로 전환
- 중앙정부 SOC 예산지출 증감률은 2010년 -1.6%, 2011년 -2.8%, 2012년 -5.3%로 감소폭이 더 확대되는 추세
- SOC 투자는 정부지출에 의한 것으로, 2013~2017년 동안 정부의 세출절감액의 60.6%가 SOC와 주택 분야라는 점에서 심각한 SOC 과소투자 우려

- SOC 정부지출은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SOC 세출절감계획으로 경제 악순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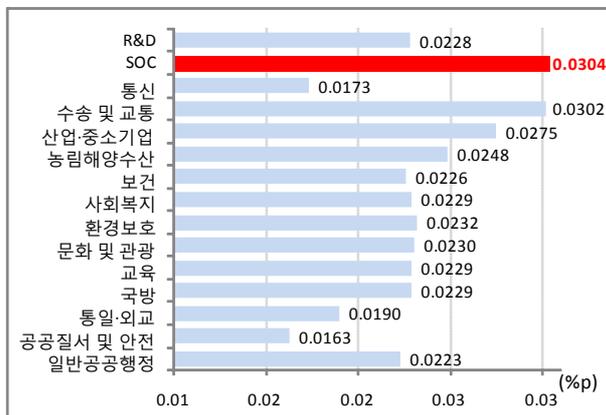
- 정부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SOC(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함
- SOC 지출은 0.0304%p의 실질 GDP 성장을 가져오고, 15개 분야 중에서 경제성장에 가장 높은 기여
- 더욱이 SOC 지출은 실업률 인하효과도 가장 높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영역임(【별첨 3】 참조)
- 반면, 사회복지와 교육에 대한 지출은 모두 0.0229%p의 실질 GDP 성장을 견인하는 영역으로 경기침체에 정부지출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SOC투자액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SOC를 중심으로 세출을 절감시킬 정부 계획은 국민경제 효율성 및 잠재성장력을 축소시킬 우려

< 중앙정부 SOC예산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 정부지출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부문은 SOC 스톡의 지역균형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이끌 유인책을 마련하며, 나아가 새로운 SOC 사업을 적극 지원
 - (공공부문 SOC 균형발전 도모) SOC 스톡 편중현상을 균형화 하고, 기존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투자 증진
 - SOC 스톡 부족부문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편성하고, 항만, 식수공급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한 인프라 수준을 균형있게 관리할 필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도·시도·군도 등 지자체 SOC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 기존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투자가 확대되어 경제활동을 효율화 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증대
 - (민간부문 SOC 투자 유도) BTL, BTO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
 - 민자투자 대상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지급금 보조비율을 높여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SOC 건설에 있어서 외국 자본의 편당이나 외국 건설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새로운 SOC 사업 지원) 건설사들의 미래유망기술 확보 및 신사업 확장을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 스마트 시티(Smart City), 그린 홈(Green Home), 건설-IT 융합산업 등의 신사업 확장 및 R&D 투자 유도
 - 전기자동차 충전·교통 인프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도입 등의 SOC 신사업 확장 유도

김광석 선임연구원 (02-2072-6215, gskim@hri.co.kr)

【별첨 1】 산업별 고용·부가가치·생산 유발계수

	고용유 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생산유 발계수		고용유 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생산유 발계수
농산물	5.4	0.873	1.436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7.4	0.648	2.418
축산물	5.2	0.637	2.269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8.0	0.641	2.416
임산물	12.8	0.935	1.404	전기기계 및 장치	6.4	0.588	2.139
수산물	6.2	0.703	1.910	전자기기 부분품	5.0	0.520	1.894
농림어업서비스	25.5	0.770	2.115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5.1	0.452	2.122
석탄 및 원유	9.9	0.871	1.503	컴퓨터 및 사무기기	4.4	0.355	1.542
금속광석	7.8	0.820	1.799	가정용전기기기	6.8	0.584	2.473
비금속광물	6.4	0.820	1.761	정밀기기	8.8	0.618	2.081
육류 및 낙농품	7.3	0.651	2.803	자동차	6.3	0.641	2.610
수산가공품	9.5	0.683	2.450	선박	5.6	0.593	2.063
정곡 및 제분	5.5	0.751	2.180	기타 수송장비	6.2	0.452	1.796
기타식료품	8.1	0.634	2.133	가구	9.5	0.659	2.413
음료품	4.7	0.768	1.832	기타 제조업제품	9.4	0.640	2.092
사료	5.0	0.413	1.865	전력	2.4	0.472	1.620
담배	1.8	0.889	1.251	도시가스 및 수도	1.0	0.280	1.145
섬유사 및 직물	6.5	0.517	1.921	건축	13.9	0.744	2.164
의복 및 섬유제품	9.5	0.657	2.065	토목 및 특수건설	10.4	0.746	2.258
가죽제품	8.1	0.505	1.886	도소매	12.4	0.858	1.746
목재 및 목제품	8.4	0.544	1.938	음식점 및 숙박	13.6	0.765	2.107
펄프 및 종이제품	6.7	0.573	2.008	육상운송	13.0	0.681	1.897
인쇄 및 복제	10.4	0.765	2.132	수상 및 항공운송	3.3	0.299	1.516
석탄제품	1.2	0.135	1.266	보관 및 운수관련서비스	7.7	0.887	1.565
석유제품	1.0	0.238	1.255	통신	7.9	0.822	1.917
기초화학제품	1.7	0.293	1.916	방송	8.0	0.826	2.07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2.7	0.408	2.236	금융 및 보험	8.4	0.923	1.707
화학섬유	3.1	0.357	1.820	부동산	4.7	0.941	1.466
비료 및 농약	5.0	0.413	1.900	연구기관	12.0	0.852	1.704
의약품 및 화장품	6.3	0.659	1.92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2.1	0.856	1.748
기타 화학제품	4.4	0.464	1.922	기타사업서비스	21.1	0.900	1.551
플라스틱제품	6.9	0.559	2.365	공공행정 및 국방	10.7	0.861	1.543
고무제품	5.8	0.535	1.827	교육서비스	16.3	0.914	1.440
유리제품	4.5	0.587	1.556	의료 및 보건	11.2	0.824	1.757
도자기 및 점토제품	9.5	0.655	1.897	사회복지사업	35.3	0.896	1.608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8.5	0.666	2.463	위생서비스	12.3	0.820	1.841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7.2	0.610	2.126	출판 및 문화서비스	12.3	0.814	2.061
선철 및 조강	2.4	0.408	1.992	오락서비스	9.1	0.888	1.670
철강 1차제품	3.1	0.498	2.622	사회단체	24.7	0.847	2.104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2.7	0.295	1.619	기타서비스	13.1	0.808	2.059
금속제품	7.6	0.641	2.429	기타	10.5	0.672	2.835
전산업	8.3	0.651	1.935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1)』

주 : 통합중분류 78부문 기준임.

【별첨 2】 2012~2016년 정부 세출절감 추진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의무지출 조정	-	0.5	0.7	0.8	0.9	3.0
재량지출 조정	-	5.8	9.6	9.5	9.9	34.8
▪ SOC 분야	-	1.7	2.7	3.5	3.7	11.6
▪ 산업 분야	-	0.9	1.3	1.0	1.1	4.3
▪ 농림 분야	-	0.8	1.3	1.3	1.8	5.2
▪ 복지 분야 (주 택)	-	2.2 (2.1)	4.0 (2.9)	3.4 (2.5)	2.9 (2.0)	12.5 (9.5)
▪ 기타 분야	-	0.2	0.3	0.3	0.4	1.2
이차보전 전환	-	0.7	1.4	1.7	1.7	5.5
국정과제 재투자	4.5	2.5	7.0	11.2	15.6	40.8
합 계	4.5	9.5	18.7	23.1	28.1	84.1

자료 : 기획재정부

- 주 1) 의무지출 :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근거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재정지출
- 2) 재량지출 :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로, 매년 입법조치가 필요한 유동적인 지출
- 3) 이차보전 :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해 주는 것

【별첨 3】 분야별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p)

구 분	실질 GDP	실업률	민간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일반공공행정	0.0223	-0.00145	0.04500	0.00464
공공질서및안전	0.0163	-0.00107	0.00968	0.01446
통일·외교	0.0190	-0.00124	0.03035	0.00473
국방	0.0229	-0.00152	0.01415	0.04423
교육	0.0229	-0.00149	0.04787	0.00455
문화 및 관광	0.0230	-0.00151	0.03601	0.01970
환경보호	0.0232	-0.00151	0.04482	0.00970
사회복지	0.0229	-0.00149	0.04843	0.00374
보건	0.0226	-0.00147	0.04648	0.00481
농림해양수산	0.0248	-0.00162	0.03946	0.02456
산업·중소기업	0.0275	-0.00181	0.03871	0.04017
수송 및 교통	0.0302	-0.00200	0.03410	0.05982
통신	0.0173	-0.00114	0.01639	0.01202
SOC(국토 및 지역개발)	0.0304	-0.00202	0.03082	0.06494
R&D(과학기술)	0.0228	-0.00148	0.04744	0.0044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1.8	2.8	3.7	1.2	2.8	0.1	1.7	1.1	2.5
유로 지역	1.4	-0.6	-0.1	-0.2	-0.1	-0.6	-0.6	-0.3	0.3
일본	-0.6	1.9	4.8	-0.9	-3.6	1.0	2.0	4.1	3.8
중국	9.3	7.8	8.1	7.6	7.4	7.9	7.8	7.7	7.5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9월 6일	9월 1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93	2.91	-0.02%p
	엔/달러	77.66	79.37	85.86	100.18	99.93	-0.25¥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120	1.3308	0.0188\$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4,923	15,301	378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3,861	14,387	52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99	2.91	-0.08%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93.0	1,085.0	-8.0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55.3	2,004.1	48.8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9월 6일	9월 1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110.49	108.58	-1.91\$
	Dubai	104.89	92.89	107.99	110.31	109.19	-1.12\$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3.34	292.05	-1.2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2.6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1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5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1.0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7	294	431	39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70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589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31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6	2.2	1.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5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105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